조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5:00 이후) 배포 2026. 11. 24.(화)

해킹·개인정보 유출 걱정 줄인다‥혁신기술로 공공 보안 강화

- 조달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정보보안 실증 현장 점검 및 공공판로 지원
- 스마트폰 일회용 인증기술로 비밀번호 도용 위험 낮춰... 공공판로 지원 강화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비밀번호 노출과 도용 위험을 줄이는 보안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정보보안 혁신제품의 실증 현장을 점검하고 혁신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및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보안 혁신제품이 공공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혁신제품의 실증과 공공구매를 연계해 공공서비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한 제품은 보안 전문기업 ㈜한줌이 개발한 스마트 사물함과 우편함으로 해당 제품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인증할 때마다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생성하는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고정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매번 새로운 인증정보를 활용해 비밀번호 노출이나 도용에 따른 보안 위험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고정 비밀번호에 의존하지 않아 공공시설 이용자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줌은 이러한 기술을 스마트 도어락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해 총 9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사물함과 우편함의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제품의 작동 방식과 보안 성능, 공공기관 활용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보안 혁신제품이 공공현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을 검증받고 실제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기회와 판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공공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혁신제품이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실증과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혁신조달기획관 혁신공공구매과	책임자	과 장	이경원	(042-724-6151)
		담당자	사무관	박준한	(042-724-71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